

研究論文

언해문에서 관찰되는‘내이’,‘네의’형에 대한 관견* -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

이 상 옥**

I. 서론	IV. 결론
II. 기존 논의 재검토	<참고문헌>
III. 속격조사 중첩형의 분포적 특성	<국문요약>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15세기 중엽 및 그 이후의 문헌에서 관찰되는,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조사 중첩형 ‘내이’, ‘네의’에 대한 기존 논의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 일·이인칭 대명사 ‘나’, ‘너’의 속격형이 평성의 ‘내’, ‘네’로 나타났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 그런데 일·이인칭 대명사 ‘나’, ‘너’의 속격형

* 본고의 초고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제6회 학술발표회(2006. 7. 8. 대우재단빌딩)와 국어사학회 2007년 여름 전국학술대회(2007. 7. 6. 한남대)에서 발표되었다.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이익섭 선생님, 김창섭 선생님, 박진호 선생님, 그 외 자리하셨던 국어연구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아울러 국어사학회에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홍윤표 선생님, 김양진 선생님, 이선웅 선생님, 심사과정에서 도움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조교, 국어문법론 전공(swlee304@snu.ac.kr).

1) 물론 평성의 ‘내’, ‘네’를 속격조사 ‘-이/의’의 공시적 통합형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이’, ‘네의’를 속격조사 중첩형이라 칭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속격조사 중첩형이라는 이름 아래 살펴

은 평성의 ‘내’, ‘네’에 속격조사 ‘-이/의’가 덧붙은 형태로도 나타나는 예가 있어 눈길을 끈다. (1)이 그 예이다.

- (1) 가. 내의 어미 爲^하야 發^혼 廣大誓願을 드르쇼셔 《月釋21:57a》
- 나. 虛空이 네의 허리 락^음 니보달 든디 몬^하리로다 《楞嚴4:92b》

기존 논의에서는 중세 국어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이 평성의 성조를 지닌 ‘내’, ‘네’뿐만 아니라 ‘내의’, ‘네의’ 등과 같이 중첩형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일찍이 주목하고, 이를 주어적 속격의 표지로 설명해 왔다. 즉 명사절 또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속격형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속격조사 중첩형은 바로 그러한 문법이 반영된 형태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의’, ‘네의’ 등과 같은 중첩형이 반드시 명사절 또는 관형사절의 주어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님은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 (2) 가. 이 紫金光比丘尼들^하 곧 내의 眷屬이^니 心^발 發^하니이다 《楞嚴5:41b》
- 나. 各別히 거긔 體를 지셔서 風雅에 親近^하다 ㅎ^느니 ㄹ장 더욱 스승 하미 이 네의 스승이^로다 《杜詩16:13a》

(2)의 예는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조사 중첩형 ‘내의’, ‘네의’가 주어적 속격의 표지라는 기존 가설에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가 관찰한 바로 속격조사 중첩형의 예는 15세기 문헌 중 《楞嚴經諺解》를 위시하여 불경언해에서 그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경언해에 나타나는 속격조사 중첩형의 예를 중심으로 그 분포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속격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것이다. 본고는 그 과정에서 속격조사 중첩형이 중세 국어 본유의 언어 사실이라기보다는 한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조심스레 주장하고 이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보고자 한다.

II. 기존 논의 재검토

기존 연구에서는 ‘-이/의’가 덧붙은 ‘내익’, ‘네의’형을 다음과 같이 주어적 속격의 표지로 설명해 왔다.²⁾ “屬格形은 가령 一·二人稱의 경우 ‘내·나익·내익·네·너의·네의’와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보통 ‘내·네’는 所有主이고 ‘나익·내익·너의·네의’는 修飾構成인 語句에서 意味上 主語이다.”³⁾ 아울러 어간 말음이 /이/인 체언, 예컨대 ‘아버(父)’, ‘가히(犬)’ ‘(-흔)이(人)’ 등이 내포질의 주어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속격형이 ‘아빅’, ‘가히’, ‘-흔닉’인 것과 달리 ‘아버의’, ‘가히의’, ‘하니익’ 등으로 나타남을 지적하고 이를 주어적 속격의 문법 현상 중 하나로 설명하기도 하였다.⁴⁾

그러나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 ‘내익’, ‘네의’ 등이 반드시 주어적 속격의 용법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님은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⁵⁾

(3) 가. 諸佛도 내익 不可思議 功德을 일크라 讚歎호샤 니르샤되 《月釋7:76b》

나. 네 이제 내익 毘陀羅手를 보라 《楞嚴2:12a》

다. 佛佛은 부텃 佛性을 니르시니라 聞聞은 내익 聞性을 니르시니라
《楞嚴6:72a》

라. 諸佛스 므스믄 곧 내익 妙覺明心이라 《楞嚴9:66b》

-
- 2) 李基文, 『國語史概說』(民衆書館, 1961), 147쪽; 安秉禧, 『韓國語發達史 中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V(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7), 196~197쪽 등에서 그와 같은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 3) 安秉禧, 위의 논문, 196~197쪽 참조. ‘주어적 속격’에 관한 논의에서 언급되는 ‘의미상 주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이 부여된 성분으로 이해되어도 무방할 듯하다. 국어에서 주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은 서술어가 동작동사일 경우 <행위주>일 가능성이 높고 상태동사일 경우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종래 주어적 속격을 다룬 대다수 논의에서는 <소유주> 또는 <행위주>에 국한하여 속격형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후행하는 동사가 동작동사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다. 일찍이 徐禎穆, 「十五世紀 國語 屬格의 研究」, 『國語研究』, 제36호(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 1977), 17~18쪽에서 상태동사의 주어도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듯이 ‘의미상의 주어’가 곧 <행위주>의 의미를 지닌 성분에 국한되어 이해될 수 없음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즉 ‘의미상의 주어’는 서술어에 따라 <경험주> 또는 <대상>의 의미를 지닌 성분일 수 있다.
- 4) 安秉禧, 위의 논문, 180~181쪽.
- 5) (3)~(7)의 예는 이미 이상옥, 「15世紀 國語 ‘-음’ 결합형의 통사적 지위와 단어 형성」, 『國語學』 제46호(國語學會, 2005), 209~210쪽에서 언급된 것이다. 다만 이상옥(2005)에서 (27)~(31)로 예시된 것 중 일부 부적절한 예를 빼고 잘못된 바로잡았음을 밝혀둔다.

- 마. 내 前世에 아모 生中에 묻져 아모 사르물 度호니 當時에 이 내의 妻妾 兄弟니 <楞嚴9:101a>
- (4) 가. 梵王이 널오되 네 어서 優波鞠多스기 가아 歸依호야사 버서나리니 네 降服 아니호면 네의 天上快樂을 헐며 네의 尊고 貴호 일후를 헐리라 <月釋4:24b>
- 나. 差別 업슨 거시 곧 네의 眞性이라 호시니 <楞嚴2:35b>
- 다. 阿難아 호다가 네의 識性이 見中에서 낳딘덴 불곰과 어드움과 色과 空과 업서 네 가지 받드기 업스면 本來 네 見이 업스리니 見性도 오히려 업거니 므스글 브터 識이 나리오 <楞嚴3:101a>
- 라. 妄見은 곧 네의 妄能을 낸 거시라 이 虛妄은 覺明을 了知치시니라 <楞嚴4:32b>
- 마. 네의 現前엿 眼과 耳와 鼻와 舌와 身과 心과 여스시 도즈기 媒ㅣ 도외야 <楞嚴4:93a>

(3), (4)에서 ‘내’, ‘네의’는 후행하는 피수식 명사의 <소유주>로 이해될 만한 것이지만 ‘-이/의’가 덧붙은 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음’ 결합형에 선행하는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 중에는 <행위주>로 이해될 만한 것임에도 ‘내’, ‘네’인 예가 다수 관찰된다.

- (5) 가. 能은 내 好요미오 所는 날 對호 境界라 勢는 威嚴 히미라 <月釋8:16b>
- 나. 이제 장차 滅度호썌 네게 傳持호노니 네 내 了知를 바다 偈를 드르라 호고 널오되 <月釋25:61a>
- 다. 고든 므스모로 내 무로를 對答호야사 호리라 <楞嚴1:44a>
- 라. 부테 圓通을 무르실썌 내 證호 法因이 上이로소이다 <楞嚴5:41b>
- 마. 내 靜호매 이션 두루 드러 了 업스니라 <楞嚴4:97b>
- (6) 가. 그 吽 雲雷音樹王 華智佛이 妙莊嚴王드려 니르샤되 올라 올라 네 닐음 다 호니라 <釋詳21:44b~5a>
- 나. 호다가 네 무름 곧호야 지비 들 제 보물 움쳐 적게 흥딘덴 울위러 히 불 제 <楞嚴2:43b>
- 다. 부테 썌 阿難드려 니르샤되 네 닐음 곧호야 精見이 업고 一切 物을 여 회여사 <楞嚴2:50b>

라. 日月에 니르리 보라 種種 象이 달오되 만드기 見精이 네 ㄹ락초물
바드리 업숯던덴 네 쏘 發明하라 이 모든 物事 中에 어너 見 아시오
《楞嚴2:51b》

마. 分別하느다 숲바당으로 虛空을 자바 뜻듯하야 더욱 제 곳글 쑤니언덩
虛空이 엇데 네 자보물 조츠리오 《楞嚴2:70a》

(5), (6)의 예에서 ‘내’, ‘네’의 성조는 모두 평성으로 속격형들이다. 이들은 의미상, 후속하는 ‘-음’ 결합형의 <행위주>로 이해될 수 있어 주어적 속격이라 할 만하지만 ‘-익/의’가 덧붙은 ‘내익’, ‘네의’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예도 살펴보자.

(7) 가. 이백 諸子 아비 주구물 듣고 ㅁ스매 ㅁ장 설위 이 念을 호되
《法華5:158a》

나. 너를 씨 쏙 척요문 곧 니르산 艱難하너 즐기는 法으로 濟度하사미니
《法華2:207a》

(7가)는 기존 논의에서 주어적 속격의 예로 언급된 것이지만⁶⁾ ‘아비의’로 나타나지 않는다. (7나)도 주어적 속격의 예로 볼 수 있으나 ‘-하너의’로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⁷⁾

이와 같이 ‘내익’, ‘네의’형을 주어적 속격의 문법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반례의 수가 상당하다. 한편 ‘내익’, ‘네의’형을 설명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일·이 인칭 대명사 ‘나’, ‘너’에서 ‘내’, ‘네’가 재구조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崔明玉(1998)에서는, ‘내익 (功德)(月 7:77)’, ‘내의 (疑心)(능 2:21)’, ‘네의 玉山(杜초 7:2)’, ‘네의 頂門(金삼 4:14)’, ‘제의 불곰(金삼 5:40)’ 등의 예가 보여 주듯 ‘내’, ‘네’, ‘제’에 ‘-익/의’가 통합된다는 사실로부터 ‘내 몸(曲 111)’, ‘내 님금(용 50)’, ‘네 손되(석 6:8)’, ‘네 향것가(月 8:94)’, ‘제 겨집(석 6:12)’, ‘제 뜯(訓諺)’ 등에 보이는 ‘내’, ‘네’, ‘제’는 각각 ‘나’, ‘너’, ‘자’에 속격조사가 통합되어 재구조화된 것이 아니라 자립형으로서 재구조화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⁸⁾

6) 安秉禧,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스」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乙酉文化社, 1968), 341~342쪽.

7) 허웅, 『우리 옛말본』(샘문화사, 1975), 321쪽.

그런데 어떤 어형이 재구조화를 겪었다면 이는 곡용 또는 활용의 패러다임상에서 확인될 것인바, ‘내의’, ‘네의’가 재구조화된 어간 ‘내’, ‘네’에 속격 조사 ‘-의’가 결합된 것이라면, ‘내’, ‘네’에 다른 조사가 결합된 어형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5세기 중엽의 문헌, 그리고 그 이후의 문헌에서도 ‘내’, ‘네’와 다른 조사와의 결합형은 관찰되지 않는다. 더욱이 ‘내의’, ‘네의’형의 예도 그 수는 일반적인 속격형 ‘내’, ‘네’와 비교할 때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적고, 그나마 현대 국어에서는 그와 유사한 어형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내의’, ‘네의’의 ‘내’, ‘네’를 재구조화된 일·이인칭 대명사 어간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III. 속격조사 중첩형의 분포적 특성

본고가 관찰한 바로는 적어도 불경언해 자료의 언해문에 나타나는 대명사의 속격조사 중첩형은 주로 구결문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⁹⁾ 즉 한문 원문에 현토된 한글 구결에 따라 언해문에서의 모습이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⁰⁾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 (8) 가. 비록 食이 能히 아라도 아로미 네게 잇디 아니호야 곧 食이 곧호야
 야 네 브토미 업스리어니 <<楞嚴3:28a>>
 나. 縱食이 能知라도 則知 | 不在汝호야 便同他食호야 汝 | 無所預호리어
 니 <<楞嚴3:27b>>

8) 崔明玉, 『국어음운론과 자료』(태학사, 1998), 240~241쪽 참조. 출전 표시는 崔明玉(1998)을 따른다.

9) 본고에서는 한문과 결합된 문법형태를 ‘구결’, 한문과 구결로 이루어진 구성 전체를 ‘구결문’이라 칭한다.

10)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조사 중첩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러한 시각은 일찍이 徐禎穆, 앞의 논문, 8~11쪽에서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다. 徐禎穆(1977)에서는 언해문의 속격조사 ‘-의’가 구결에 견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文獻資料의 특성에 따른 屬格語尾 실현의 문제”가 지니는 가치와 그러한 자료상의 제약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윤용선, 『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亦樂, 2003)은 언해문에 대한 구결문의 문법적 영향을 밝힌 본격적인 연구로 참조된다.

- (9) 가. 네 體 몬져 父母人 想을 因하야 나니 네 ㅁㅅㅁ 想 아니면 能히 想中
에 와 命을 傳티 몬하리라 《楞嚴10:78b》
나. 汝體 先因父母想하야 生하니 汝心이 非想이면 則不能來想中하야 傳
命하리라 《楞嚴10:78b》

(8가)~(9가)의 ‘네’는 그 성조가 각각 상성과 평성으로 나타나 주격형과 속격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8나)~(9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응되는 구결문을 통해 확인된다. 즉 해석상 주어로 이해되는 ‘汝’는 주격조사 ‘-이’가 현토되어 있어 관형어로 이해되는 ‘汝’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평성의 ‘네’는 그 대부분이 구결이 현토되지 않은 ‘汝’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는 ‘네의’의 예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속격조사 ‘-의’가 현토된 ‘汝의’에 대응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주목을 끈다.

- (10) 가. 虛空이 네의 허러 락음 니보믈 듣디 몬하리로다 《楞嚴4:92b》
나. 不聞虛空이 被汝의 墮裂이로다 《楞嚴4:92a》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내익’, ‘네의’ 등과 같은 중첩형이 나타나는 이유를 본고에서는 (9나), (10나)에서 관찰되는 구결문의 차이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다음의 예가 보여주듯이 언해문의 속격조사 중첩형이 늘 속격조사가 현토된 ‘我의’, ‘汝의’에 대응되는 것은 아니므로 언해문의 속격조사 중첩형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좀더 면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 (11) 가. 알픽 묻즈오되 엇데 이 내의 眞性인 들 알리잇고 흘씨 《楞嚴2:35b》
나. 前에 問하스오되 云何得知是我眞性이잇고 흘씨 《楞嚴2:35a》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에는 ‘내익’, ‘네의’ 외에 ‘내의’도 있고, 중첩형은 아니지만 주어적 속격의 이름 아래 함께 기술되어 온 ‘나익’, ‘너의’도 있고, 또한 기존 논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의’도 있다. 본고의 관찰에 의하면 이들 속격형은 15세기 국어 문헌 자료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楞嚴經諺解》에서 그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내의’의 경우에만 《杜詩諺解》에서 높은 빈도를 보일 뿐이

다. 이상욱(2005)에서 보고되었듯이 《楞嚴經諺解》에서 ‘내이’, ‘네의’는 각각 18회, 16회 나타나며 ‘나이’, ‘너의’는 각각 1회, 9회 나타난다. ‘내의’는 6회 나타나며 ‘나의’의 예는 《楞嚴經諺解》에서 발견되지 않는다.¹¹⁾ <표 1>~<표 5>는 각각의 용례를 대응되는 구결문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표 1> ‘내이’의 용례(18회)

《언해문》	《출전》	《구결문》	《출전》
내이 모습과 누를 뿌니이다	《楞嚴1:45a》	用我的 心目이니이다	《楞嚴1:45a》
내이 스랑하야 혜요맨	《楞嚴1:56a》	如我思村엔	《楞嚴1:56a》
내이 覺了能知하는 므스미	《楞嚴1:57a》	然我覺了能知之心이	《楞嚴1:56b》
내이 보는 性이	《楞嚴1:109a》	非我見性이	《楞嚴1:108b》
내이 毋陀羅手를 보라	《楞嚴2:12a》	見我의 毋陀羅手하라	《楞嚴2:11b》
내이 드리운 손과로	《楞嚴2:19a》	如我의 垂手로	《楞嚴2:18b》
내이 니르논 法音 分別하요므로	《楞嚴2:24a》	若以分別我의 說法音하요므로	《楞嚴2:24a》
내이 眞性인 들 알리잇고	《楞嚴2:31b》	云何得知是我의 眞性하리잇고	《楞嚴2:31b》
내이 微妙한 性인덴	《楞嚴2:45b》	必我妙性인덴	《楞嚴2:45b》
내이 沈垢를 시스사미	《楞嚴4:76a》	洗我沈垢	《楞嚴4:76a》
내이 眷屬이니	《楞嚴5:41b》	卽我의 眷屬이니	《楞嚴5:41b》
내이 큰 辯才 이슈를 아라사	《楞嚴5:58b》	知我의 有大辯才하사	《楞嚴5:58a》
내이 眞觀을 니버	《楞嚴6:25b》	蒙我眞觀하야	《楞嚴6:25a》
내이 曾 두러이 노곤 조흔 覺의 體에	《楞嚴6:41b》	曾不離吾의 一圓融淨覺之體하야	《楞嚴6:40a》
내이 聞性을 니르시니라	《楞嚴6:72a》	謂我之聞性也 라	《楞嚴6:71b》
내이 妙覺明心이라	《楞嚴9:66b》	卽我의 妙覺明心也 라	《楞嚴9:66a》
내이 肉身上이라 하며	《楞嚴9:97a》	我의 肉身上이라 하며	《楞嚴9:96b》
내이 妻妾兄弟니	《楞嚴9:101a》	是我의 妻妾兄弟니	《楞嚴9:100b》

<표 2> ‘내의’의 용례(6회)

《언해문》	《출전》	《구결문》	《출전》
내의 疑心스 불휘를 싸허사	《楞嚴2:21b》	拔我疑根하사	《楞嚴2:21a》
내의 眞性인 들 알리잇고	《楞嚴2:35b》	云何得知是我眞性이잇고	《楞嚴2:35a》
내의 보디 아니하는 고들 보디 묻하는다	《楞嚴2:36a》	何不見吾이 不見之處오	《楞嚴2:36a》
내의 보디 아니하는 들 보노라 홀던덴	《楞嚴2:37a》	謂能見吾이 不見者인덴	《楞嚴2:36b》
내의 보디 아니하는 싸홀 보디 묻홀던덴	《楞嚴2:37a》	若不見吾이 不見之地니덴	《楞嚴2:37a》
내의 이기요므로	《楞嚴4:22b》	以我의 體으로	《楞嚴4:20b》

11) 이상욱, 앞의 논문, 208쪽.

<표 3> ‘나익’의 용례(1회)

《언해문》	《출전》	《구결문》	《출전》
맡읻 나익 依와 正괘 몬져 根身이 아니며	《楞嚴3:63b》	凡我익 依와 正괘 先非根身이며	《楞嚴3:62a》

<표 4> ‘네의’의 용례(16회)

《언해문》	《출전》	《구결문》	《출전》
네의 覺了知見하는 므스미	《楞嚴1:54b》	若汝의 覺了知見之心이	《楞嚴1:54b》
네의 焦腑ㅣ리며	《楞嚴1:60a》	皆汝의 焦腑ㅣ리며	《楞嚴1:59b》
네의 本來 덜덜든 거슬 일흔 전철씨	《楞嚴1:85b》	失汝의 元常홀씨	《楞嚴1:85a》
네의 眞性이라	《楞嚴2:35b》	即汝의 眞性이라	《楞嚴2:35b》
네의 識性이	《楞嚴3:101a》	若汝의 識性이	《楞嚴3:101a》
네의 識性이	《楞嚴3:101b》	若汝의 識性이	《楞嚴3:101b》
네의 妄能을 내야	《楞嚴4:13b》	生汝의 妄能하야	《楞嚴4:13b》
네의 妄能을 낸 거시라	《楞嚴4:32b》	卽生汝의 妄能者也ㅣ라	《楞嚴4:32a》
네의 歷劫에 受苦ㅣ이 修證홀 거시 아니니	《楞嚴4:71a》	非汝歷劫에 辛勤修證이니	《楞嚴4:71a》
네의 能히 證홀 거시 아니니	《楞嚴4:71b》	非汝의 能證이니	《楞嚴4:71b》
네의 몰근 두려운 妙覺明心을 눈호야	《楞嚴4:81b》	分汝의 湛圓흔 妙覺明心하야	《楞嚴4:81b》
네의 허러 꺾음	《楞嚴4:92b》	汝의 墮裂	《楞嚴4:92a》
네의 現前엿 眼과 耳와 鼻와 舌와	《楞嚴4:93a》	則汝의 現前엿 眼耳鼻舌와	《楞嚴4:92b》
네의 갓근 聞機를 두르혀	《楞嚴6:76a》	汝의 倒聞機하야	《楞嚴6:76a》
네의 寶覺 온 모를 허로되	《楞嚴9:49b》	乃墮汝의 寶覺全身호되	《楞嚴9:49b》
네의 現在흔 見聞覺知	《楞嚴10:85a》	故汝의 現在흔 見聞覺知	《楞嚴10:85a》

<표 5> ‘너의’의 용례(9회)

《언해문》	《출전》	《구결문》	《출전》
너의 現前에 밝기 아는 므스미	《楞嚴1:51a》	若汝의 現前所明了心이	《楞嚴1:51a》
너의 覺了能知하는 므스미	《楞嚴1:66b》	又汝의 覺了能知之心이	《楞嚴1:66b》
너의 生死를 바다서	《楞嚴2:10a》	受汝의 生死하야서	《楞嚴2:9b》
너의 眞常이니	《楞嚴2:10a》	卽汝의 眞常이니	《楞嚴2:10a》
너의 오늘 누느로	《楞嚴2:89b》	例汝의 今日에 以目으로	《楞嚴2:89b》
너의 이비 아로미 아니어니존	《楞嚴3:10b》	非汝의 口知어니존	《楞嚴3:10a》
너의 보미	《楞嚴3:35b》	汝의 見이	《楞嚴3:35b》
너의 블론 귀와 소리왜	《楞嚴3:39a》	又汝所明흔 耳와 聲괘	《楞嚴3:39a》
너의 妄能을 내느니라	《楞嚴4:11b》	生汝의 妄能이라	《楞嚴4:11b》

<표 1>의 예 중에서 다음은 기존 논의대로라면 주어적 속격의 예로 다루었을 법한 것이다. 이를테면 (12나)~(12바)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내익’로 실현된 것이고 (12가), (12사)~(12아)는 명사절의 주어가 ‘내익’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2) 가. 내익 스랑ᄃ야 헤요맨 《楞嚴1:56a》
- 나. 내익 覺了能知ᄃ논 므스미 《楞嚴1:57a》
- 다. 내익 보논 性이 《楞嚴1:109a》
- 라. 내익 드리운 손과로 《楞嚴2:19a》
- 마. 내익 니르논 法音 分別ᄃ요미로 《楞嚴2:24a》
- 바. 내익 微妙ᄃ 性인덴 《楞嚴2:45b》
- 사. 내익 沈垢ᄃ를 시스사미 《楞嚴4:76a》
- 아. 내익 큰 辯才 이슈물 아라샤 《楞嚴5:58b》

그러나 언해문의 속격조사 중첩형이 내포절 주어의 표지일 수 없음은 <표 1>의 다른 예를 통해 극명히 드러난다. (13가)~(13차)에서 ‘내익’에 후속하는 성분은 내포절이 아닌 명사구이며 ‘내익’의 의미역도 <행위주>가 아닌바 속격조사 중첩형이 주어적 속격의 표지라는 기존 주장은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 (13) 가. 내익 므슴과 누닐 뿌니이다 《楞嚴1:45a》
- 나. 내익 毘陀羅手ᄃ를 보라 《楞嚴2:12a》
- 다. 내익 眞性인 들 알리잇고 《楞嚴2:31b》
- 라. 내익 眷屬이니 《楞嚴5:41b》
- 마. 내익 眞觀을 니버 《楞嚴6:25b》
- 바. 내익 ᄃ 두려이 노근 조ᄃ 覺이 體에 《楞嚴6:41b》
- 사. 내익 聞性을 니르시니라 《楞嚴6:72a》
- 아. 내익 妙覺明心이라 《楞嚴9:66b》
- 자. 내익 肉身上이라 ᄃ며 《楞嚴9:97a》
- 차. 내익 妻妾兄弟니 《楞嚴9:101a》

본고에서는 《楞嚴經諺解》의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속격조사 중첩형이 기원적

으로, 대응되는 구결문에 견인된 결과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즉 언해문의 속격조사 중첩형은 구결문의 ‘我의’, ‘汝의’가¹²⁾ 언해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언뜻 보기에 다음과 같은 예를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 (14) 가. 내익 스랑호야 헤요맨 《楞嚴1:56a》
나. 如我思忖엔 《楞嚴1:56a》
- (15) 가. 내익 覺了能知호는 므스미 《楞嚴1:57a》
나. 然我覺了能知之心이 《楞嚴1:56b》
- (16) 가. 내익 보는 性이 《楞嚴1:109a》
나. 非我見性이 《楞嚴1:108b》
- (17) 가. 내익 微妙호 性인덴 《楞嚴2:45b》
나. 必我妙性인덴 《楞嚴2:45b》
- (18) 가. 내익 沈垢를 시스사미 《楞嚴4:76a》
나. 洗我沉垢 | 《楞嚴4:76a》
- (19) 가. 내익 眞觀을 니버 《楞嚴6:25b》
나. 蒙我眞觀 호야 《楞嚴6:25a》
- (20) 가. 내익 聞性을 니르시니라 《楞嚴6:72a》
나. 謂我之聞性也 | 라 《楞嚴6:71b》

(14)~(20)의 예에서 구결문의 ‘我’는 속격조사가 현토되어 있지 않지만 ‘내익’로 언해되고 있다.¹³⁾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해문의 속격조사 중첩형이 늘 구결문의 ‘我의’, ‘汝의’에 대응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평성의 ‘내’, ‘네’는 다음의 몇 예를 제외하고 구결

12) 문맥에 따라서 ‘ㅁ의’도 관찰된다. 또한 ‘我’, ‘ㅁ’에 연결된 속격조사 구결은 ‘-의’뿐만 아니라 ‘-의’도 관찰되는데 이는 구결이 현토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을해자로 간행된 《楞嚴經諺解》에서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는 속격조사 구결에 대해 주목으로 교정이 이루어졌음을 관찰할 수 있는바 목판본 《楞嚴經諺解》의 구결문에서 발견되는 ‘我의’, ‘ㅁ의’ 등은 미처 교정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결문에서 발견되는 ‘我의’, ‘ㅁ의’ 등은 그 대부분이 대응되는 언해문에서 ‘내익’로 정정되어 있다.

13) 이때 ‘내익’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포절의 주어로 이해될 만한 것도 있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문에서 속격조사 ‘-이/의’가 현토되지 않은 ‘我’, ‘汝’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언해문의 일반적인 속격형이 구결문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 (21) 가. 도라감 업수미 實로 네 眞性인 들 結호야 毗시니 《楞嚴2:30b》
 나. 結示無還호미 實汝의 眞性호시니 《楞嚴2:30a》
- (22) 가. 엇데 모로매 내 佛頂神呪를 기드려 摩登伽의 ㅁㅁㅁ미 婬火 다 歇호야 《楞嚴4:72b》
 나. 何須待我的 佛頂神呪호야 摩登伽心이 婬火 頓歇호야 《楞嚴4:72a》

(21), (22)의 예를 제외하면 《楞嚴經諺解》에서 구결문의 ‘我이/의’, ‘汝의’는 모두 언해문에서 ‘내의’, ‘나의’, ‘나이’, ‘네의’, ‘너의’ 등으로 언해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구결문이 언해문의 모체가 되어 구결에 의해 분절된 한문구결이 축자적으로 언해된 후 그 언해된 단위들이 구결의 문법 형태에 의해 다시 연결되는 과정으로 언해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¹⁴⁾ 일치하는 것이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그 한 가지는 한문원문의 모든 ‘我’, ‘汝’ 뒤에 속격조사 ‘-이/의’가 현토된 것은 아닌바 그 현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몇몇의 경우이지만 구결문에서 ‘我’, ‘汝’ 뒤에 속격조사 ‘-이/의’가 현토되지 않았음에도 속격조사 증첩형으로 언해된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첫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 (23) 가. 고든 ㅁㅁㅁ로 내 무로물 對答호야사 ㅎ리라 《楞嚴1:44a》
 나. 應當直心으로 酬我所問이나라 《楞嚴1:44a》
- (24) 가. 부테 圓通을 무르실씩 내 證호뎌 法因이 上이로소이다 《楞嚴5:41b》
 나. 佛問圓通호실씩 如我所證엔 法因이 爲上이로소이다 《楞嚴5:41a》
- (25) 가. 내 靜호매 이션 두루 드러 ㄱ 업스니라 《楞嚴4:97b》
 나. 在我之靜호얀 則周聽無邊호니라 《楞嚴4:97b》

14) 불경언해의 번역 과정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일찍이 金完鎭, 「능엄경언해에 관한 몇 가지 과제」, 『한글』, 제127호(한글학회, 1960), 70-83쪽; 金相大,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研究』(翰信文化社, 1985), 10-11쪽; 윤용선, 앞의 책, 41~48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楞嚴經諺解》와 《金剛經諺解》의 발문 및 진전문의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다.

- (26) 가. 부테 쯔 阿難드려 니르샤되 네 낄을 곤흐야 精見이 업고 一切 物을
여희어샤 <<楞嚴2:50b>>
나. 佛이 復告阿難흐샤되 如汝所言흐야 無有精見흐고 離一切物흐야샤 <<
楞嚴2:50b>>
- (27) 가. 日月에 니르리 보라 種種 象이 달오되 반드기 見精이 네 그락초를 바
드리 <<楞嚴2:51b>>
나. 乃至日月흐라 種種象이 殊호되 必無見精이 受汝所指ㄴ덴 <<楞嚴
2:51a>>
- (28) 가. 이런드로 니르샤되 네 불공 곧다 흐시니라 <<楞嚴3:35b>>
나. 故로 曰如汝所明이라 흐시니라 <<楞嚴3:35a>>

(23)~(28)에서 한문원문이 ‘我所~’, ‘汝所~’의 구조인 경우 구결문의 ‘我’, ‘汝’에는 ‘-익/의’가 현토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각각은 언해문에서 평성의 성조를 가진 ‘내’, ‘네’로 번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所’가 한문독법의 한 가지 표지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문 원문만으로도 그 독법이 명확한 몇 가지 경우에는¹⁵⁾ 구결이 현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언해문에서 대명사의 속격형이 ‘내’와 ‘내익’, ‘네’와 ‘네의’ 등으로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만하다. 즉 한문원문만으로도 독법이 분명하여 구결이 현토되지 않은 ‘我’, ‘汝’는 각각 ‘내’, ‘네’로,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익/의’가 현토된 ‘我익’, ‘汝의’는 ‘내익’, ‘네의’ 등으로 언해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추정이 무리가 아니라면 <<楞嚴經諺解>>를 비롯한 불경언해 자료의 언해문에서 관찰되는 속격조사 중첩형은 당대 국어의 본유한 언어 사실이라기 보다 구결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일반적인 속격형 ‘내’, ‘네’와 그 중첩형 ‘내익’, ‘네의’의 차이가 통사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한편 ‘내익’, ‘네의’ 외에 ‘나익’, ‘너의’, ‘내의’ 등은 구결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¹⁶⁾ 즉 ‘나익’, ‘너의’는 ‘我익’, ‘汝의’의 ‘我’, ‘汝’

15) ‘我’, ‘汝’ 뒤에 ‘所~’, ‘之~’가 뒤따르거나 ‘心’, ‘體’ 등 서술어로 쓰이기 힘든 한자가 오는 경우에 그러하다.

를 각각 ‘나’, ‘너’로 언해한 데 따른 예외일 것이며 ‘내의’는 모음조화상의 혼동이 있었던 언해자의 잘못된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의’는 총 6예 중 1예를 제외하고 권2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음으로 구결문에서 ‘我’, ‘汝’에 속격조사 ‘-의’, ‘-의’가 현토되지 않았음에도 속격조사 중첩형으로 언해된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9) 가. 내의 스랑ㅎ야 헤요맨 <楞嚴1:56a>
나. 如我思忖엔 <楞嚴1:56a>
- (30) 가. 내의 覺了能知ㅎ논 므스미 <楞嚴1:57a>
나. 然我覺了能知之心이 <楞嚴1:56b>
- (31) 가. 내의 보는 性이 <楞嚴1:109a>
나. 非我見性이 <楞嚴1:108b>
- (32) 가. 내의 微妙ㅎ 性인덴 <楞嚴2:45b>
나. 必我妙性인덴 <楞嚴2:45b>
- (33) 가. 내의 沈垢를 시스사미 <楞嚴4:76a>
나. 洗我沉垢ㅣ <楞嚴4:76a>
- (34) 가. 내의 眞觀을 니버 <楞嚴6:25b>
나. 蒙我眞觀ㅎ야 <楞嚴6:25a>
- (35) 가. 내의 聞性을 니르시니라 <楞嚴6:72a>
나. 謂我之聞性也ㅣ라 <楞嚴6:71b>
- (36) 가. 내의 疑心스 불휘를 싸혀샤 <楞嚴2:21b>
나. 拔我疑根ㅎ샤 <楞嚴2:21a>
- (37) 가. 내의 眞性인 들 알리잇고 <楞嚴2:35b>
나. 云何得知是我眞性이잇고 <楞嚴2:35a>
- (38) 가. 네의 歷劫에 受苦ㄹ이 修證ㅎ 흥 거시 아니니 <楞嚴4:71a>
나. 非汝歷劫에 辛勤修證이니 <楞嚴4:71a>
- (39) 가. 너의 들곤 귀와 소리왜 <楞嚴3:39a>
나. 又汝所明ㅎ 耳와 聲과 <楞嚴3:39a>

16) 엄밀히 말해서 ‘나의’, ‘너의’를 번역 과정의 ‘잘못’으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이 대부분 평성의 ‘내’, ‘네’로 나타난다는 점과 현대 국어에서도 ‘나의’, ‘너의’ 등은 문어라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29)~(35)는 구결문의 ‘我’가 ‘내익’로 언해된 예이고 (36), (37)은 구결문의 ‘我’가 ‘내의’로, (38), (39)는 구결문의 ‘汝’가 각각 ‘네의’, ‘너의’로 언해된 예이다. 이들은 언해문의 속격조사 중첩형이 ‘我’, ‘汝’ 뒤에 현토된 구결 ‘-익’, ‘-의’에 견인된 것임을 가정하는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예로 인해 본고의 가정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예는 ‘내익’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의’, ‘네의’, ‘너의’의 경우 그 출현 빈도가 각각 2회, 1회, 1회에 머무르고 있어 언해 과정에서의 단순한 잘못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내익’의 경우에는 총 18회 중 7회가 ‘我’에 대응되는 점으로 미루어 언해 과정에서의 단순한 잘못으로 간주하기에 무리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본고는 한문원문의 ‘我’, ‘汝’ 뒤에 속격조사 ‘-익’, ‘-의’가 현토된 바와 동일한 맥락에서 언해문의 중첩형이 설명될 수 있음을 가정하고자 한다. 즉 한문원문에 구결을 현토하는 과정에서 한문원문은 그 독법이 분명하여 속격조사 ‘-익’, ‘-의’가 현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결문을 독자적으로 언해하는 과정에서 언해문의 통사구조는 자칫 부자연스럽고 중의적인 것이 되기 쉬운바, 속격조사 중첩형은 한문원문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표지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제시된 바와 같이 (29)~(39)의 예는 대부분, 그 언해문만을 고려할 때 정확한 통사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바 기존 논의대로라면 속격조사 중첩형은 내포질의 주어로 이해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대응되는 구결문을 고려하면 (29)~(39)의 예는 모두 ‘NP이 NP’ 구성으로 이해되는 것인바 속격조사 중첩형을 주어적 속격의 표지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이다. (29)~(39)의 통사구조는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 (40) 가. [[내익 [스랑햐야 혜음]]엔] 《楞嚴1:56a》
 나. 如我思忖엔 《楞嚴1:56a》
- (41) 가. [[내익 [覺了能知ㅎ논 므슴]]이] 《楞嚴1:57a》
 나. 然我覺了能知之心이 《楞嚴1:56b》
- (42) 가. [[내익 [보논 性]]이] 《楞嚴1:109a》
 나. 非我見性이 《楞嚴1:108b》
- (43) 가. [[내익 [微妙ㅎ 性]]인덴] 《楞嚴2:45b》

- 나. 必我妙性인덴 <楞嚴2:45b>
 (44) 가. [[[내의 [沈垢]]를] 시스삼이] <楞嚴4:76a>
 나. 洗我沉垢 | <楞嚴4:76a>
 (45) 가. [[[내의 [眞觀]]을] 니버] <楞嚴6:25b>
 나. 蒙我眞觀 ㅎ야 <楞嚴6:25a>
 (46) 가. [[[내의 [聞性]]을] 니르시니라] <楞嚴6:72a>
 나. 謂我之聞性也 | 라 <楞嚴6:71b>
 (47) 가. [[[내의 [疑心入 불휘]]를] 싸허사] <楞嚴2:21b>
 나. 拔我疑根 ㅎ사 <楞嚴2:21a>
 (48) 가. [[[[내의 [眞性]]이]니] 들] 알리잇고] <楞嚴2:35b>
 나. 云何得知是我眞性이잇고 <楞嚴2:35a>
 (49) 가. [[[네의 [歷劫]]에]受苦리이 修證홍 거시 아니니] <楞嚴4:71a>
 나. 非汝歷劫에 辛勤修證이니 <楞嚴4:71a>
 (50) 가. [[[[너의 [불공 귀]]와] 소리]왜] <楞嚴3:39a>
 나. 又汝所明혼 耳와 聲과 <楞嚴3:39a>

또한 한문원문에 구결을 달고 또 이를 다시 언해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의 결과가 얼마나 원문에 충실하고 자연스러운가에 대해 구결 현토자나 언해자의 판단이 늘 일정하지만은 않았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억측이 아니라면 동일한 구조의 한문 원문에 바탕을 둔 구결문이나 언해문의 모습이 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예도 본 고의 논의에서 수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서 예시되었던 (21)~(22)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1) 가. 도라감 업수미 實로 네 眞性인 들 結 ㅎ야 毘시니 <楞嚴2:30b>
 나. 結示無還호미 實汝의 眞性 ㅎ시니 <楞嚴2:30a>
 (52) 가. 엇데 모로매 내 佛頂神呪를 기드려 摩登伽의 ㅁ스미 婬火 다 歇 ㅎ야 <楞嚴4:72b>
 나. 何須待我的 佛頂神呪 ㅎ야 摩登伽心이 婬火 頓歇 ㅎ야 <楞嚴4:72a>

(51)에 제시된 구결문과 언해문의 모습은 동일한 구조의 한문원문에 바탕을 둔 (48)의 구결문, 언해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동일한 구조의 한문원문에

바탕을 둔 또다른 예로 (42), (43)에 제시된 구결문, 언해문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我’나 ‘汝’에 후행하는 ‘見性’, ‘妙性’, ‘眞性’ 등을 하나의 단어로 이해한 경우와 달리, 이를 더 풀이하여 해석하는 경우 그 언해문의 통사구조는 중의적이기 쉽다. 동일한 구조의 한문원문에 바탕을 두고도 구결문에서 ‘-의’, ‘-의’의 결합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결 현토자가 후자의 번역을 염두에 두고 ‘我’나 ‘汝’ 뒤에 ‘-의’, ‘-의’를 달았다 하더라도 언해 과정에서 ‘見性’, ‘妙性’, ‘眞性’ 등이 더 이상 풀이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노출되었다면 ‘我’나 ‘汝’가 굳이 ‘내의’, ‘네의’로 언해될 필요가 없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물론 (44)~(49)의 예는 각각 한문 원문상 ‘我’, ‘汝’에 후행하는 ‘沉垢’, ‘眞觀’, ‘聞性’, ‘疑根’, ‘眞性’, ‘歷劫’ 등이 언해문에서 더 이상 풀이되지 않았음에도 ‘我’, ‘汝’가 ‘내의’, ‘내의’, ‘네의’ 등으로 언해되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예문에서 관찰되는 ‘내의’, ‘내의’, ‘네의’형은 ‘我’, ‘汝’에 선·후행하는 ‘洗’, ‘蒙’, ‘謂’, ‘拔’, ‘云何得知是’, ‘非 ~ 辛勤修證’ 등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통사구조상의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40)~(41), (50)의 예도 한문원문에 구결을 다는 과정에서는 그 독법이 분명하여 ‘我’ 뒤에 구결이 현토되지 않았으나 구결문이 언해되는 과정에서는 구조상 중의성이 초래되는바 ‘내의’, ‘너의’ 등으로 언해되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사실 기존 논의에서 중세 국어 통사구조의 특징적 현상으로 기술되어 온 주어적 속격은 이러한 관점에서 당대 국어의 본유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기존 논의에서 중세 국어의 명사구 수식 구성은 현대 국어에 비해 기이하게 복잡하고 중의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종래 주어적 속격 구문으로 주목되었던 예도 그러한 수식 구성의 한 모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다.¹⁷⁾ 중세 국어 자료에서

17) 주어적 속격 가설의 이론 내적 문제점에 관한 논의로는 임흥빈, 「존재전제와 속격표지 ‘의’」, 『언어와 언어학』, 제7집(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981), 61~78쪽; 이상옥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 제173호(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研究會, 2004), 12~31쪽; 이상옥, 앞의 논문(2005), 183~226쪽; 이상옥, 「主語的 屬格에 대한 再論」, 『형태론』, 제8권 1호(박이정, 2006), 1~27쪽 등이 참조된다. 주어적 속격 가설은, 주격형에 할당되는 의미역이 부여된 속격형을 내포절의 주어로 기술하려는 것인데 이는 의미구조 즉 논항구조와 통사구조의 층위를 혼동한 것이라 생각된다. 통사구조가 서로 다른 두 구성의 의미구조는 동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찰되는 이러한 통사구조가 한문원문을 독자적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추정의 개연성은 속격조사 중첩형의 문헌별 출현 빈도가 해당 자료의 문체적 특성과 일정한 상관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조사 중첩형의 예는 《楞嚴經諺解》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 논의에서 의역에 가깝다는 점이 언급되어 온 《釋譜詳節》이나 《月印釋譜》에서 그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체가 차이 나는 비슷한 시기 자료에서 그 출현빈도가 대조적이라는 사실은 ‘내이’, ‘네이’가 당대 국어의 본유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근거가 된다.¹⁸⁾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서 관찰되는 예는 아래 제시된 (53), (54)에 불과하다.

(53) 가. 네 내이 여러 劫에 이트렛 예구든 衆生을 受苦르비 度脫호는 이를 보

느니 《釋詳11:7b》

나. 큰 受苦 홍 時節에 네 모로매 내이 忉利天宮에 이서 브즈러니 付屬호 단 이를 싱각호야 《釋詳11:8a》

다. 이 蓮花는 내이 어디로미 아니니이다 《釋詳11:27b》

라. 내이 孝道호스뵈며 스랑호습는 쁘들 나토노니 諸佛이 비록 滅度호야 《釋詳23:29b》

마. 내 이제 諸佛入 不可思議 功德 일곤즈바 讚歎호 곤호야 諸佛도 내이 不可思議 功德을 일크라 讚歎호샤 니르샤디 《月釋7:76b》

바. 罪福이 내이 짓는 배라 호고 善惡業因으로 날 삼디 아니홀씩 《月釋11:120a》

사. 네 내이 여러 劫에 勤苦호야 이리툃 호 化티 어려븐 剛強호 罪苦衆生을 度脫호거든 《月釋21:34a》

아. 내이 어미 爲호야 發호 廣大誓願을 드르쇼셔 《月釋21:57b》

자. 내 이제 큰 慈悲 ㅁ자 衆生과 天龍八部를 어엿비 너겨 내이 地藏菩薩

18) 최초의 刊經都監本 佛經諺解인 《楞嚴經諺解》와 달리 이후의 불경언해에서 속격조사 중첩형의 출현빈도는 높은 편이 아니다. 이는 속격조사 중첩형이 번역 과정의 산물임을 가정할 때 본유한 언어 사실에 부합하고자 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 사 不思議 利益 이를 껴 니르거든 듣고져 흥느니 네 슬퍼 드르라 《月釋21:158b》
- 차. 내 닐오디 이는 未來엿 모딘 比丘 比丘尼들히 내익 解脫法服을 恭敬
아니 흥릴지 《月釋25:37b》
- 카. 尊者하 몬져 내익 念佛 므스물 니르와다 《月釋25:124a》
- (54) 가. 어마니미 즉자히 닐오디 네의 出家호를 듣노라 《釋詳21:39a》
- 나. 네 降服 아니하면 네의 天上快樂을 헐며 네의 尊코 貴흔 일후를 헐리
라 《月釋4:24b》
- 다. 다시 닐오디 내 네 禮數호는 過去엿 覺華定自在王如來로니 네의 어미
그려호미 상넛 뜨땃 衆生에서 倍홀찌 와 니르노라 《月釋21:22a》

물론 이들 예들은 그 출전의 성격에 비추어 역으로 본고의 가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례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¹⁹⁾ 예컨대 (53마)에 제시된 《月印釋譜》의 예는 아래 (55)에 제시된 《阿彌陀經諺解》의 예에 대응되는 것인데 《月印釋譜》의 문체적 특성을 감안하면 (53마)의 예를 근거로 (55가)의 ‘내익’이 당대 국어의 본유한 언어 사실이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한 것이다.

- (55) 가. 내 이제 諸佛사 不可思議 功德 일큰즈바 讚歎홈 곧하야 더 諸佛도 내익 不可思議 功德을 일크라 讚歎호샤 이 말 호샤디 《阿彌27b》
- 나. 如我今者에 讚諸佛不可思議功德호아 彼諸佛等도 亦讚我不可思議功德호샤 而作是言호샤디 《阿彌27a》

그러나 이상욱(2005)에서 제시된 다음의 예들은 그러한 추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²⁰⁾

- (56) 가. 내의 壽命長遠 닐오돌 듣고 《法華5:197a》
- 나. 聞我的 設壽命長遠호고 《法華5:197a》
- (57) 내 壽命長遠 닐오돌 듣고 《月釋17:34b》

19) 제시된 바와 같이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서 관찰되는 ‘내익’, ‘네의’형 대부분이 기존의 통설대로 주어적 속격의 표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20) 이상욱, 앞의 논문, 211~213쪽.

(58) 가. 또 能히 法다이 내의 虛妄흔 허물 니르리 업스리라 《法華5:159b》

나. 亦無有能如法히 說 我的 虛妄過者 흐리라 《法華5:159b》

(59) 내 虛妄흔 허물 니르리 업스리라 《月釋17:22b》

(56)~(57), (58)~(59)는 각각 동일한 원전에 바탕을 둔 대응 예를 제시한 것인데, (56), (58)의 ‘내의’가 국어의 본유한 언어 사실로서 주어적 속격의 표지라면 (57), (59)의 ‘내’는 성조가 거성이거나 ‘내의’로 나타나야 할 것이 기대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제시된 예는 직역과 의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전형이라 생각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속격조사 중첩형을 번역 과정의 산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정 하에 설명되어야 할 점은 의역에 가까운 문헌에 비록 적은 수라 하더라도 속격조사 중첩형이 관찰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직역과 의역의 차이가 정도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²¹⁾ 설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²²⁾

본고의 가정은 ‘내의’, ‘네의’형의 통시적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들 중첩형은 15세기 문헌에서부터 그 수가 극히 한정되어 나타났던 것인데 그 이후의 문헌에서도 관찰되기는 하나 역시 드물게 나타난다. 더욱이 ‘내의’, ‘네의’형의 예는 20세기 초의 일부 문헌 자료를 제외하면 현대국어의 구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문어에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자연스러운 통시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으로 ‘내의’, ‘네의’형의 예외적 특성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15세기 문헌을 제외하면 ‘내의’가 ‘내의’보다 우세하며 속격조사 ‘-의/의’, ‘-스’이 ‘-의’로 통합된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면 ‘내의’는 관찰되지 않는다. 대신 16세기 문헌에서

21) 《釋譜詳節》이나 《月印釋譜》 등이 비록 직역과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번역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웠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들 자료는 직역된 자료에 비해 당대 국어의 본모습에 좀더 가까우리라는 점이 언급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직역된 자료에 비해 ‘한문구조의 영향을 받은 부분’과 ‘국어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간의 경계가 불분명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의역에 가까운 자료에서 관찰되는 속격조사 중첩형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22) 한편 본고의 가정은 책의 체제상 구결문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에나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釋譜詳節》, 《月印釋譜》 등과 같이 체제상 구결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속격조사의 중첩형을 그 번역 과정의 산물로 가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정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5세기 중엽 이전의 구결 자료들을 염두에 둔다면, 체제상 구결문이 수록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고의 가정은 견지될 수 있으리라 본다.

부터 그 수가 늘어나는 ‘나의’, ‘너의’는 17세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준다.²³⁾ 이러한 추이는 한편으로 ‘내익’, ‘네의’의 ‘내’, ‘네’가 재구조화된 대명사 어간일 가능성에 의문을 더해 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나의’, ‘너의’형이 점차 문어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조사 중첩형이 한문·원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일 가능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구결이 한문 독법을 위한 표지임을 가정할 때, 관형성분에 해당되는 ‘我’, ‘汝’가 구결문에서 ‘-익/의’가 결합되어 ‘我익’, ‘汝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무 구결이 결합되지 않은 채 ‘我’, ‘汝’로도 나타나는 것은 양자 사이에 무엇인가 차이가 있기 때문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본고는 그 차이가 한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의 중의성 유무에 따른 것임을 가정하고 ‘我’, ‘汝’에 결합된 ‘-익/의’는 바로 그러한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임을 주장하였다. 속격조사 중첩형의 출현 빈도가 15세기 문헌 중에서도 최초의 간경도감본 불경언해인 《楞嚴經諺解》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종래 간경도감본 불경언해 자료는 한문·원문을 직역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세 국어 본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구결문과 언해문으로 이루어진 그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국어 본유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 간의 경계를 좀 더 분명히 밝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종래 주어진 속격의 표지로 일컬어져 온 속격조사 중첩형이 중세 국어 본유의 언어 사실이 아님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고의 논의가 좀 더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

23) 다만 이러한 통시적 분포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 있다. 16세기의 순천김씨 언간문에서 드물게나마 관찰되는 ‘내의’와 19세기 이후의 신문 자료에서 관찰되는 ‘내의’, ‘네의’가 그것이다. 이들은 속격조사 중첩형을 한문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하는 본고의 논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것들이다. 본고는 이들이 당대 문어의 문체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결과물이 아닌가 추측해 볼 뿐이다.

들이 남아 있다. 본고는 문헌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이전 시기 국어의 모습이 대개의 경우 언해문이라는 점에서 한문원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셈인데, 언해문이라든가 개화기 이후의 신문 등과 같이 번역 과정 자체를 상정하기 어려운 자료에서 관찰되는 속격조사 중첩형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본고는 이를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金文雄, 『15世紀 諺解書의 口訣研究』. 서울: 螢雪出版社, 1986.
- 김문웅, 「한글 구결에 나타난 문법 형태의 변천」. 『국어사 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국어사 학술발표대회 발표요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57~271쪽.
- 金相大, 『中世國語 口訣文의 國語學的 研究』. 서울: 翰信文化社, 1985.
- 金完鎭, 「능엄경언해에 관한 몇 가지 과제」. 『한글』 제127호, 한글학회, 1960, 70~83쪽.
- 徐禎穆, 「十五世紀 國語 屬格의 研究」. 『國語研究』 제36호.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研究會, 1977(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安秉禧, 「韓國語發達史 中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V.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67.
- 安秉禧,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入」에 대하여」. 『李崇寧博士頌壽紀念論叢』. 서울: 乙酉文化社, 1968, 337~345쪽.
- 윤용선, 『15세기 언해자료와 구결문』. 亦樂, 2003(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李基文, 『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61/1972/1974.
- 이상욱, 「‘-음’, ‘-기’ 명사형의 단어화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 제173호,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研究會, 2004(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상욱, 「15世紀 國語 ‘-음’ 결합형의 통사적 지위와 단어 형성」. 『國語學』 제46집, 國語學會, 2005, 183~226쪽.
- 이상욱, 「主語的 屬格에 대한 再論」. 『형태론』 제8권 1호, 박이정, 2006, 1~27쪽.
- 임흥빈, 「존재전제와 속격표지 ‘의」」. 『언어와 언어학』 제7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981, 61~78쪽.
- 崔明玉, 『국어음운론과 자료』. 서울: 태학사, 1998.
- 허웅,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1975.

국문 요약

기존 논의에서는 15세기 국어 일·이인칭 대명사의 속격형이 평성의 성조를 지닌 ‘내’, ‘네’뿐만 아니라 ‘내이’, ‘네의’ 등과 같이 중첩형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에 일찍이 주목하고, 이를 주어적 속격의 표지로 설명해 왔다. 즉 명사절 또는 관형사절의 주어가 속격형으로도 나타나는 것은 중세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인데, 속격조사 중첩형은 바로 그러한 문법이 반영된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찰에 따르면 중첩형의 예 중에는 내포절의 주어로 이해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포절의 주어로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며 오히려 후자의 예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중첩형의 예는 15세기 문헌 중에서도 《楞嚴經諺解》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는데, 본고는 《楞嚴經諺解》에서 관찰되는 중첩형의 예를 모두 추출하여 일반적인 속격형과의 차이를 검토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고는, 속격조사 중첩형 ‘내이’, ‘네의’가 이전 시기 국어의 본유한 언어 사실이라기보다 한문원문을 언해하는 과정에서의 산물일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 투고일 : 2007. 7. 10.

● 심사완료일 : 2007. 9. 4.

● 주제어(keyword) : 일·이인칭 대명사(1st and 2nd personal pronouns), 속격조사 중첩형(a piled form of genitive case marker), 주어적 속격(subjective genitive), 楞嚴經諺解(Neungeomgeongeonhae), 언해하는 과정에서의 산물(by-product of the translation).